

# 익산시, 전국 첫 '어르신 마을자치연금제' 시행

### 공공기관이 마을공동체와 협력 신재생에너지 등 수익 창출·분배 70세 이상 월 10만~15만원 지급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농촌 어르신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마을공동체와 협력해 공동으로 농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익산시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을 구상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등이 동참한다. 익산시와 이전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가 함께 추진할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난 23일 익산시청에서 지역공동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제공>

마을자치연금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농촌 경제와 무너진 생활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일조하게 된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을 분배해 마을에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

르신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억4700만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을 지원한다. 또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 마을공동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

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로 인해 농촌 어르신들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은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 단일마을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법이다. 최근 3년 평균 수익이 1500만원 이상으로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익산시는 지난 22일 요건에 충족하는 예비사업체법인으로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으며 이르면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인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마을자치연금을 비롯한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인구 문제 극복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와 6개 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재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고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공동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에 '109m 출렁다리' 설치 완료



정읍시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구절초 테마파크에 출렁다리를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정읍시는 총사업비 41억원을 들여 수면 위 24m 높이에 109m 길이의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1.2km의 탐방로를 조성했다.

주탑을 꽃반지 모양으로 형상화했으며, 출렁다리 위에서 옥정호 풍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구절초 출렁다리는 야간 LED 조명을 활용해 은하수가 내리는 느낌이 연출된다. LED 조명 전기 공사는 내년 1월 중에 완료해 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별빛을 선사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군산시 내년 6월까지 연장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실시했던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에 맞춰 군산시는 상가임대료의 자율적인 인하 유도를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추진했다.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인은 군산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산=박광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호남 최대 가야 무덤' 남원 청계리 고분군, 전북도 기념물 지정



호남 최대 가야무덤인 남원시 청계리 고분군이 전북도기념물로 지정됐다. 청계리 고분군 지장조사 후 전경. <남원시 제공>

길이 31m...5세기 전반 축조 추정

남원시는 호남 최대의 가야 무덤인 청계리 고분군이 전북도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남원 청계리 고분군'은 해발 770m의 남원 운봉 고원 시루봉 동쪽 비탈면 끝부분에서 발굴된 가야 고분들이다.

가야 무덤군인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전북도 기념물인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 내려다보이는 지점에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찾아낸 고분군은 5세기 전반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군은 길이 약 31m, 너비 약 20m, 높이 5m 안팎인 호남에 현존하는 최고(最古), 최대 규모의 가야 고총고분(高塚古墳)이다.

석곽에서는 아라가야계 수레바퀴 장식 토기 조각, 기대(器臺·그릇받침), 고배(高杯·굽다리접시), 중국 도자기 조각 등 중요한 유물들이 나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전북도기념물 지정은 청계리 일대 가야 고분에 대한 학술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계 고분군을 월산리 고분군과 묶어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권익위 청렴도평가 고창군 2등급 달성 2년 연속 '전북 최고'

고창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등급을 달성, 2년 연속 전북 최고 청렴점수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창군 청렴도는 지난 2018년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에서 민선 7기 1년차인 지난해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고, 올해도 전북 최고인 2등급을 달성했다.

고창군은 민선 7기 들어 군민이 알기 쉬운 공간행정을 위해 '평이근민(平易近民)'을 행정철학으로 내걸고 군민과 소통했다. 또 1부서 1정령시책, 정령마을리지제, 부서별 청렴 다짐행사 등 각종 반부패 시책 추진을 통해 군 안팎에서 청렴문화 확산에 애썼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외부 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감점요인을 적용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청렴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한 행정을 펼쳐 모든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꾸고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